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9일 (음력 4월 25일) 수요일

## ‘준공영제’ 광주시내버스 재정투명성 힘겨루기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검증하려는 광주시의원과 조합 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원은 시 재정지원금 사용에 따른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경영상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최근 광주시 버스운송조합에 각 회사별 투자금

광주시의회 박미정 환복위원장 회계자료 요구

“세금 투입되는 만큼 안전·친절도 향상 파악”

버스운송조합 “회사별 영업비밀 담겨있어 곤란”

내역과 총자산 시 재정지원금 배분현황, 3년간 재무제표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

스 업체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학생과 고령층인 만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친절도가 어느정도 향상되고 있는지도 살펴 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임금 인상과 운전원 추가채용 등으로 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업체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이다 보니 방만한 경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광주시가 참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이윤 배분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도 업체의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도, 버스 친절도 등이 향상됐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의 회계자료 요구에 버스운송조합은 회사별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버스 운송수입과 재정지원금 배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과 마을버스 연관성, 광주 인접 타시·군 버스노선과 중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수레국화 앞 정자에 앉아 휴식 취하는 시민들. 선선한 날씨를 보인 28일 전북 전주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에 수레국화가 만개해 있어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 전남도 ‘과잉생산’ 증만생종 양파 1만 시장 격리

전남도는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격적으로 평년보다 15만1000t 과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증만생종 1만t, 163ha를 신속 시장 격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산 양파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줄었으나 생육기 기상 호조로 생산 단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가격은 장기간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발표한 ‘정부의 증만생종 양파 수급안정대책’은 출하 정지 1만2000t, 수매 비축 600t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 농업 현장의 여론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 차원에서 주산지 시군, 농협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수확기 이전 3만 이상 물량을 조속히 시장 격리하고 1만8000t 수준의 수매 비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 물량은 과잉 생산 예상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배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추가 대책을 요구해왔다. 전남도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난 21

일 도 주관으로 주산지 시군, 농협, 농업인 단체와 긴급회의를 열어 1만t 시장 격리를 결정하고,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시군 등과 함께 총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6월 초까지 증만생종 양파 시장 격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양파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다른 도와 공동 보조를 취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산지 시군에서도 생산량 등을 감안해 자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지도 국산 양파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 자체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겨울배추 655ha, 겨울 대파 466ha, 양파 223ha 등에 대해 총 18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김정환 기자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 뿌리 논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유한국당은 김영삼의 후예나 전두환의 후예나, 한국당이 문민정부를 계승한다면 5·18 관련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군부독재와 문민정부중 자신의 뿌리를 분명히 선택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8년 특 biệt법을 통해 문민정부가 5·18의 연정상상에 있다고 산인하고 1995년에는 5·18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노태우씨를 법정에 세웠다”며 “그러나(문민정부의 계승자를 지칭하는) 한국당은 5·18 관련 3법 강제를 유야무야시켰고 국회 윤리위원회 장계도 무력화했다. 역사와 국제법적 처리를 막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에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한국당은 김영삼의 후예나, 전두환의 후예나



입장 관련하게 될 그런 걸...



전두환을 부정 못하는 것 보니까...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